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자료문의 : 수출입과 안병화 과장(02-2110-5331), 강미숙 사무관(5333)

FTA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수출 확대 총력 다짐

- 업종별 수출입 여건 및 전망 점검 및 FTA 활용 방안 논의 -

□ 지식경제부는 '12.2.22(수) 조석 2차관 주재로 10대 업종별 단체와 무역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함

○ 금번 점검회의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수출업종의 최근 수출 여건과 올해 전망을 점검하고,

-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업종별 건의사항 청취, 민·관 합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아울러, 한-미 FTA 발효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개소에 맞추어 업종별 FTA 활용방안과 애로사항도 점검하였음

□ 조석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유가 상승세 등 대외여건이 점차 악화되어 수출 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음을 언급하면서도,

○ 한-미 FTA 발효, 신흥국의 견조한 성장세 등의 기회요인을 활용한다면 수출 확대와 글로벌 위기의 조기 극복이 가능함을 강조

○ 특히, FTA는 가격 경쟁력 확보, 시장 선점 효과 등 우리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을 거듭 강조하며, 체결된 FTA의 적극 활용을 통해 수출 확대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길 당부함

□ 지식경제부는 최근 수출입 환경과 관련해서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의 안정적 성장과 무역흑자 기조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

○ 2월 무역수지는 자동차, 석유제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 증가로 1월의 20억불 적자에서 개선되어 흑자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면서도,

○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덧붙임

□ 업종별 단체들도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 주요 제품의 단가 하락,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을 우려함

○ 참석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신흥국 진출 강화, EU·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 활용 본격화 등 기회를 적극 살려나가는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 이러한 업계의 노력이 큰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R&D 및 수출금융 지원 확대, 해외 마케팅 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

○ 특히, FTA를 통한 수출 확대에 큰 기대를 보이며, FTA의 현명한 활용을 위해서 관련 홍보, 교육 등이 업종별로 특화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이를 위해 업종별 전문가 확보, 수출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함

□ 정부는 민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외 마케팅, 무역금융 등 수출 촉진활동을 상반기에 집중 전개*하여 무역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 신흥시장 무역보험 지원규모(억불) : ('11) 1,232 → ('12) 1,345 (상반기 60%)
* '12년 전시회 참여지원(상반기/연간) : (해외) 62/100, (국내) 33/46

○ 특히, 어제 개소한 민·관 합동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업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한 교육, 컨설팅 추진 및 정보 서비스 강화 등 FTA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며,

- FTA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업종별 단체 차원에서도 업계의 FTA 활용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함

＊ FTA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으로 구성하여 FTA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원스톱 지원
＊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 내비」운영(1.16~) 및 정보제공 대상국 확대(EU→미국) 등

○ 무역보험공사, KOTRA 등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들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함께 강구하고,

-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무역금융 지원 강화 등을 원활히 추진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로 함

참고 1.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요
참고 2. 업종별 수출여건 및 수출 확대 방안

참고 1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요

1. 회의 목적

□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주요 품목별 수출입 동향 및 전망을 점검하고,

○ 수출의 안정적 성장세와 무역흑자 기조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논의

＊ 2월 및 1/4분기 수출여건과 전망, 수출확대 방안 등을 중점 점검

○ 또한, 업종별 FTA 활용 방안 및 애로사항 점검을 통해 체계적 지원 방안 강구

2.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2.2.22(수) 16:30~18:00 / 지경부 다산실(6층)

□ 참석자 : 지경부, 업종별 협회·단체, 무역 유관기관 등 15여명

○ 지경부 : 2차관(주재), 무역투자실장, 수출입과장

○ 협회 : 조선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10대 업종별 협회

○ 유관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 진행순서

시 간		내용	비고
16:30～16:35	5"	인사말씀	2차관
16:35～16:45	10"	최근 수출입 동향 및 전망	수출입과장
16:45～17:35	50"	업종별 수출여건·전망 및 애로사항 건의	업종별 협회
17:35~17:55	20"	수출확대 대책 및 지원 방안 등 자유 토론	참석자 전원
17:55～18:00	5"	마무리 말씀	2차관

<참고 : 참석자 명단>

구분	소속	지위	성명
정부	지식경제부	2차관	조석
	〃	무역투자실장	한진현
업종별 단체	한국 기계산업진흥회	부회장	박영탁
	한국 철강협회	부회장	오일환
	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	부회장	김창로
	한국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	김동수
	한국 자동차공업협회	상무	허완
	한국 조선협회	상무	유병세
	한국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김호
	한국 반도체산업협회	상무	이종희
	한국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전상헌
	대한석유협회	상무	이원철
유관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사장	권문홍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이사	배창헌
	한국무역협회(국제무역연구원)	원장	오상봉

참고 2 업종별 수출여건 및 수출 확대 방안

업종	수출 여건	수출확대 방안
일반 기계	·중국의 기계류 수요 둔화,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수출 증가세 다소 둔화 - 엔고 현상 등은 가격경쟁력 상승 요인으로 작용	·한-EU 및 한-미 FTA 수혜예상품목 중심으로 적극적 수출 촉진 방안 마련 ·신흥시장내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 개발 필요
철강	·국내업체의 공급 능력은 확대되나, 내수 부진하여 수출 확대 총력 예상 - 주요국의 철강수요는 2분기 이후 회복세 전환 기대	·주요국 수입규제 강화에 적극 대응 ·전시회 개최 및 참가, 시장조사단 파견 등 적극적 마케팅 활동
석유 화학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지속, 중국의 지준율 인하 등 위기 및 기회요인 혼재 - 공급 측면에서는 주요 경쟁국의 신증설 둔화로 시장내 경쟁 다소 완화	·고부가가치 시장* 선점을 위한 신사업 투자 확대 * 태양광, 정보전자 소재용 등 ·또한, 원가경쟁력 확보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설비투자 지속
섬유	·선진국 소비심리 위축, 중국의 수출 감소에 따른 섬유소재 수출 둔화 등 부정적 요인도 존재하나, - FTA 발효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한류열풍에 따른 이미지 상승 등 기회요인도 존재	·베트남, 인니 등 신흥국과의 네트워크 강화 ·섬산연내 FTA 지원센터 운영 등 FTA를 통한 수출 확대 방안 강구 ·해외시장 개척 활동 확대를 통한 마케팅 강화
조선	·'08년 금융위기 이후 수주량 감소, 선가 하락 등으로 수출 여건 악화 - 특히, 최근 재정위기로 유럽계 선주의 금융경색으로 선박 인도 어려움 존재	·旣확보 물량의 계약취소 및 변경 방지에 주력 ·국내 선박 금융 확대 노력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업종	수출 여건	수출확대 방안
자동차	·세계경기 둔화 및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주요국 자동차 수요 증가세 둔화 - FTA 확대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원화 강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고연비 저가 소형차 판매 경쟁 심화 등 우려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신흥국 수출 확대 추진 ·수출전략 차종 투입,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 ·FTA 기체결국 뿐만 아니라 FTA 발효 예정국 수출 확대 추진 ·미국, EU 등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고효율 차량 수출 확대
가전	·선진국 시장의 침체 등 부정적 요인이 존재하나, - 2분기 이후 올림픽 특수 등을 통해 수출 회복세 기대	·스마트 TV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시장별 맞춤형 현지화 전략을 통해 신흥시장 수출 주력
컴퓨터	·태국 홍수로 인한 HDD 공급 차질, 스마트기기 보급 확대에 따른 PC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 태블릿 PC, Window 8 출시 등 기회 요인 존재	·주요국의 대형이벤트 적극 활용 ·품질경쟁력을 갖춘 하이엔드 노트북, 태블릿 PC 등으로 신흥시장 공략
반도체	·美 경기개선 등 세계경기 회복과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견고한 성장 등 기대 - 메모리는 외국 경쟁사의 구조조정 가시화로 국내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 예상 * D램(%) : ('10) 59.0 →('11) 65.1 →('12e) 68.5 * 낸드(%) : ('10) 48.5 →('11) 48.6 →('12e) 50.2	·(메모리) 미세화 투자 지속 및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확대 ·(시스템) 수율확대 및 3D 융합을 통한 고성능화
디스플레이	·글로벌 수급여건 개선에 따른 패널가 안정화* 등으로 '12년 수출은 전년대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 패널가격 추이(LCD TV용 32") : ('11.4Q) 125→('12.1Q) 123→(2Q) 125→(3Q) 132 - 향후 TV 수요의 전개 방향이 핵심 변수로 작용 * 글로벌 LCD TV 수요 전망(백만대, 전년대비 증가율) : ('11) 206(7.5%) → ('12.e) 227(10.2%)	·LCD 고품질화, 차세대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위기 극복 ·LCD 장비업계는 신규 투자를 지속 추진하는 중국 공략 및 사업영역 확장 추진

업종	수출 여건	수출확대 방안
무선 통신기기	·해외생산 비중의 지속 확대, 피처폰 수출 감소 등 수출여건 악화 * 해외생산비중(%) : ('11.1Q) 61.8 → (2Q) 72.9 →(3Q) 78.0 → (4Qe) 78.2	·글로벌 통신망 사업자, OS 플랫폼 사업자와의 연대 강화 ·차별화 포인트(슬림 디자인, 스크린 사이즈 대형화 등) 부각 및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선 다변화
석유제품	·아시아 지역 수요 증가,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 등 우호적 요인 다수 * EIA 보고서('11.12월)에 따르면 중국 및 타 개도국들이 세계 석유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12년 중국 석유 수요는 전년대비 56만B/D증가 예상	·수출 시장 다변화 및 FTA 효과 극대화를 통한 수출 확대 ·고유가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도 수출액 확대에 기여할 전망